

<표 6> 접경지역지원 추진상황

일 자	내 용	비 고
'99.12.16	접경지역지원법(안) 본회의 의결	의원입법
'00. 1.21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공포(법률 제6185호)	
'00. 8.28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6956호)	
'01. 3. 9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종합계획수립지침 심의)	
'01. 3.26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인천·경기·강원)	
'01. 3.26	시도 접경지역계획(안) 수립·추진	
~ '02. 1	- 주민 공청회 실시('01.8~9월) - 계획(안) 취합('01.11월) - 계획(안) 수정·보완('01.11~)	

은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인 만큼 종합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정책적 지침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연차별로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V. 결 어

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이 실물경제상의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경제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미국경기 회복이라는 낙관론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이제 부터는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시장을 소위 3중(中東, 中南美, 中國)으로 확대하거나 수출품도 다변화하는 새로운 총체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전략은 지방으로부터 발산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지방화는 곧 세계화이며 『地

方은 末端이 아니라 尖端』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살찌우고 작지만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활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경제는 국가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으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며 IMF 외환관리체제를 극복해 온 그 저력을 다시 한 곳에 모아 총 결집해 나가야 하겠다. 